

전남도, 추석 농축수산물 판촉 총력전

전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판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8일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랜드리테일과 함께 ‘전남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적체물량이 늘어 가격이 불안정해 수산 양식어가와 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가 많은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인 이랜드리테일과 함께 수산물 소비가 좀 더 많이 이뤄지도록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전복 3.5t을 준비해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전국 김스클럽 매장에서 시

중가보다 40% 할인된 알뜰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왕복 5마는 9천900원, 대 8마는 9천900원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이랜드리테일과 농산물을 구매 약정을 한 이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수 특산물 생산·공급 및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형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식어가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도시민이 전남 우수 농수특산물을 만나보도록 광주·대전·경기 성남의 유명 백화점에서 전남 농수특산물 농촌융복합 인증제품 판촉전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전남농업6차산업화지원센터, 광주 신세계백화점, 롯데

백화점 분당점, 대전 세이백화점이 협력해 코로나19로 힘든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별로 ▲6-16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9-19일 롯데백화점 분당점(성남시) ▲10-16일 대전 세이백화점에서 각각 진행된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 인증제품의 홍보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수특산물뿐만 아니라 우수 가공 제품도 선보인다.

주요 제품은 ▲보성 갈매농원 녹용즙 ▲장성 북하특목사업단 젓갈 ▲나주 장수식품 배즙 ▲해남 천사의 땅 고춧가루 ▲고흥 농업회사법인 담우 장아찌 ▲광양 해누리 파프리카분발 ▲함평에푸드

한과 등이다. 가격대는 1만~2만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하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농촌융복합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이 밖에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https://jnmall.kr)를 통해 최근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전복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1kg당 15-16마리 크기 활전복을 1kg에 2만원, 2kg에 3만6천원으로 시중 가격보다 4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전복양식협회가 작은 전복을 출하 가격으로 공급하고 전남도가 택배비, 포장(박스)비 등을 도비로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작은 전복 재고 소진을 위해 GS리테일, 이랜드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 기획전을 추진하고, 도, 시·군, 기관단체, 연고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 전복 판매행사를 펼쳤다. 앞으로

14일까지 전국 김스클럽 매장 전복 등 40% 할인
19일까지 유명 백화점서 융복합 인증 제품 판매

도 대형거래처 납품 확대·직거래장터 등을 지속 전개해 재고 소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복 양식 역사상 가장 저렴한 가격에 드시면서 여름 동안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하고, 어업인이 힘을 내도록 전 국민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복이 소비자에게 더욱 친숙한 수산물로 다가가 어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축산물 판로에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고향의 넉넉한 인심을 느끼도록 전남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선물할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농축특산물을 구입하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8일부터 17일까지다.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 유통업체, 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판매·가공업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업체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물 등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사과, 배, 밤, 대추, 육류 등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관련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공품 651개 품목과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등 10개 품목이다.

/김재정기자



전남도농기기술원은 최근 농촌진흥청과 함께 강진군 소재 농업법인 ㈜도두맘에서 친환경 재배로 생산한 ‘작두콩차’를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도, 수확기 농촌인력 수급 지원

전남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짐에 따라 ‘가을철 농촌인력 수급전망 및 인력지원 계획’을 수립,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점관리 대상 농작업은 양파·마늘·겨울배추 정식, 가을배추·배·고구마 수확 등 6개 작물이다. 6개 작물의 전남지역 재배면적은 총 1만9천371ha로 농작업을 위한 소요 인력은 37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높은 작업 숙련도를 요하는 마늘·양파 정식과 배 등 과실 수확은 농가에서 전문인력을 선호하고 있어 전남도는 사실인력을 고용해 충당할 방침이다. 투입 인력은 23만6천명이며 총 소요인력의 62.7% 규모다.

/김재정기자

도농기원·농촌진흥청, 라이브커머스 눈길

강진 ㈜도두맘, ‘작두콩차’ 하루 매출 200만원 성과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지역 농산물 판촉 행사에 나섰다.

8일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3일 농촌진흥청과 함께 강진군 소재 농업법인 회사인 ㈜도두맘에서 친환경 재배로 생산한 ‘작두콩차’를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해 하루 매출 200만원, 동시접속 1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특히 라이브방송 중에 블랙작두콩차와 티백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전 상품 무료 배송과 추가 증정 이벤트, 퀴즈를

통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호평받았다.

라이브방송에 참여한 ㈜도두맘 홍여신·송영기 부부는 2015년 서울에서 귀농해 탐진강 맑은 물과 월출산 푸른 숲, 강진만의 해풍을 맞고 자란 신선한 친환경 작두콩을 재배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도두맘의 작두콩차는 강진군 1호 부부 유기농 기능사로 지정된 홍여신 부부가 ‘EM 장어 아미노산 액비’를 이용해 특허받은 기술로 재배한 어린 콩을 전문 바리스타가 로스팅해 깊고 진한 향과 맛을 자랑한다.

성공리에 행사를 마치 흥여신 대표는 “이번 판매 행사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용 전남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촌진흥청과 함께 한 이번 라이브커머스가 전남지역 농산가공품을 전국으로 홍보해 조금이나마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작거리 시장인 라이브커머스를 농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 녹색축산육성기금 217억 용자 지원

1% 저리...수해 농가 등 우선 혜택

전남도는 8일 “현대화 축산시설 확충과 청년 축산농업인 양성을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 대상자 71호를 확정하고 시설·운영 자금을 저리 용자 지원하는데 21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설 자금은 축사시설 신규 설치,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에 50호 190억원, 운영자금은 원료육 구입,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미생물 구입 등에 21호 2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구례 한우농가의 송아지 입식과 시설 복구 위해

9호 1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신규 축산청년 창업농가의 축사 신축에도 10호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전남 미래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설 자금은 친환경 실천 농가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이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농업인·법인의 경우 20억원 이내, 축산물 유통업체는 30억원 이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의 경우 2억원 이내, 축산물 유통업체는 3억원 이내다.

연리 1%로 저리 용자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김재정기자

농협은행 전남본부, 재래시장 방역물품 지원

목포자유시장 등 소상공인 마스크·손소독제 전달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8일 “이날 목포지역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에 지원된 방역물품은 ▲마스크 1만3천500매 ▲친환경 손소독제 2천700개 등으로 목포자유시장, 동부시장, 청호시장 등 목포 지역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다.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동반진행했다. 소상공인 전용 여신상품 및 사업자금 운용을 위한 맞춤형 자산상담을 진행해 소상공인의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주력했다.

또한 집계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협은행 직원 대상으로 추석맞이 용품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착한소비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창기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9월10일
OPEN

첨단연제

비즈파크

남다른 투자가치와 미래형 첨단 업무시설,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과 다양한 세제혜택!
10만여 배후수요를 가진 고품격 프리미엄 오피스!

✓분양가 9,900만원의 프리미엄 오피스

✓다양한 세제혜택 (재산세, 취득세 감면)

✓실투자금 1,000만원이면 나도 건물주

✓주택수 미포함 (대출 최대 90%까지)!!

첨단연제

비즈파크

지식산업센터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Yeonje

1661-4470

■ 타워1: 사무·연구·개발·엔지니어링 ■ 타워2: 디자인·광고·홍보 ■ 타워3: 제조·생산·조립 ■ 타워4: R&D·개발·엔지니어링 ■ 타워5: 제조·생산·조립 ■ 타워6: 제조·생산·조립 ■ 타워7: 제조·생산·조립 ■ 타워8: 제조·생산·조립 ■ 타워9: 제조·생산·조립 ■ 타워10: 제조·생산·조립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파라메트릭

랜드피아

버거킹

농협

금호대우아파트

BIZPARK

분양정보관

국립건강보험공단

CMB 광주방송

국토교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분양정보관: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치평동 1213번지) 우체국보통화관 1층

CMYK